

광야의 시험과 유혹

마태복음 4:1-11

(주일 설교 2006-03-26)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야(Easter Eve)까지의 40일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죄로 인한 탄식과 참회, 금식을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행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세가지 유혹을 당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대표적으로 설교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침에는 세가지 유혹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유혹과 시험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부분은 본문 말씀의 해석이고, 두번째 부분은 본문 말씀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던 말씀입니다. 힘겨웠던 시간에 누구에게보다 먼저 저 자신에게 큰 격려가 되어 주었고 시험과 유혹에 관해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 설교가 광야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 배경 설명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컫는 세 공관복음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시던 그 때에 광야에서 본문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광야의 이 사건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겪으셨던 이 광야의 시험과 유혹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마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세가지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시험과 유혹에 관한 참으로 소중한 통찰이 숨어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신앙원리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4장을 계속 펴 놓으신채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기 바로 전 마태복음 3:16-17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 성자, 성령, 그리고 아버지... 이 삼위일체의 참으로 다정하고 친밀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낮아짐,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엿보인 하늘로부터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내부 관계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한 모습이 4장 1절에 이르면 상황이 갑자기 급전합니다. 바로 한절 전의 그 친밀한 순간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 너무도 다정히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황량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던 그 때에 마치 침묵하고 계신 듯이 본문에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4:1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곳이었는데 그러한 광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성령님의 역할, 광야의 의미, 마귀의 의도, 시험과 유혹에 관한 깊은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의 40일” 하면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생각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시간은 시험과 훈련,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바쳐진 십일조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져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17 말씀 다음에 4:1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얻은 노예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참자유를 알아가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생활을 40일 동안 축소체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습체험이 아닌, 반전체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며, 넘어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통쾌하고도 깔끔하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으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의혹과 신비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페이라스모스(Peirasmos)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도 번역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Te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유혹, Tempt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페이라스모스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는 “시험”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라스모스를 하는 주체가 마귀일 때는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또한 시험과 유혹은 그 목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믿음을 prove 하시고 더 나아가 Improve 하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마귀가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관련하여 야고보서 1:1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13)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 광야로 가사...”
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기 위해 광야로
가사...”

대부분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hen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하나님께서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 Test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욥을 시험하시고, 다윗을 시험하시고, 사도바울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 Temptation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삼손을 유혹하고, 욥을 유혹하고, 다윗을 유혹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합니다.

주기도문과 페이라스모스

여기서 잠시 주기도문의 마지막 여섯번째 청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여섯번째 청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13)**

주기도문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그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또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페이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Test가 아닌 Tempt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항상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한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욱 강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속성상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고, 욥도 시험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본대로 하나님은 속성상 어차피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까?

또 다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 그 모순의 열쇠가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두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인 페이라스모스의 사건으로 하여금 시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의도하신 페이라스모스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이 되도록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우리로 하여금 페이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페이라스모스가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데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시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구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페이라스모스였습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하여금 시험으로 의도하신 페이라스모스였지만 사탄은 그것을 유혹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40일 광야사건도 또한 페이라스모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 페이라스모스로 하여금 시험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페이라스모스를 세가지의 유혹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동산에서 페이라스모스가 시험이 되게하는데 실패하고, 유혹으로 변질되게 하였지만, 두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황량의 광야의 페이라스모스로 하여금 유혹이 아닌 시험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깊은 치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Part II. 적용

그럼 이제 다 함께 이 신앙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체험은 끊임없는 페이라스모스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병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험의 페이라스모스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유혹의 페이라스모스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도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험의 페이라스모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의 페이라스모스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문제, 사업의 실패, 재정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상황 그 모든 것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시험의 페이라스모스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유혹의 페이라스모스가 되게 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이 유혹의 시간으로 변질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의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에 노출된 고깃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중립적인 페이라스모스가 변질되어 유혹이 되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페이라스모스와 성령님의 역할

바로 여기에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면하게 되는 모든 페이라스모스들로 하여금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시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페이라스모스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광야의 페이라스모스를 유혹이 아닌
시험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성부와 성령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유혹이 되게 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험을 통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며, 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가 페이라스모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페이라스모스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우리 교인들이 안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시험으로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교회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후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광야의 페이라스모스로 하여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흐뭇한 미소로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페이라스모스를 통해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여지며, 강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상황은 언젠가 정리가 되고, 교회는 안정을 되찾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 전체를 광야의 페이라스모스로 바라보는 영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광야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영적 패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함께 머리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놓여있는 페이라스모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페이라스모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페이라스모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페이라스모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순례 여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삶은 페이라스모스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험이 사탄마귀에 의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시험이 유혹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